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창업시도태도에 미치는 영향

하환호(경남과학기술대학교 부교수)*

변충규(경상대학교 강사)**

국 문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창업시도성과 실패, 과정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에 주목하였다.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은 그 정도에 따라 위험에 대한 인내력과 모호성에 대한 인내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험과 모호성에 대한 인내력이 창업시도성과 실패 및 시도과정 자체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창업시도성과 실패 및 과정에 대한 태도가 창업시도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경로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경로분석결과, 위험에 대한 인내력은 창업시도실패태도에만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호성에 대한 인내력은 창업시도실패태도에 부(-)의 영향을, 창업시도과정태도에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과 마찬가지로 창업시도성태도는 창업시도태도에 정(+)의 영향을, 창업시도실패태도는 창업시도태도에 부(-)의 영향을, 창업시도과정태도는 창업시도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학문적 의의와 실무적 시사점 그리고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핵심주제어: 불확실성, 위험에 대한 인내력, 모호성에 대한 인내력, 시도성태도, 시도실패태도, 시도과정태도, 창업시도태도

1. 서론

우리나라 청년들은 창업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와 공공기관의 창업문화 확산노력에도 불구하고 창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크게 바뀌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14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20-39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창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상자의 25.3% 정도가 ‘창업을 고려해봤다’는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창업을 고려해보지 않았다’는 응답이 68.3%에 달해 대다수의 청년들은 창업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창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은 것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36.0%)’이었다. 창업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각을 묻는 질문에서도 응답자의 60% 정도가 부정적으로 답해 사회 전반에 창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2015).

그럼 어떻게 하면 창업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 태도는 “어떤 대상에 일관성 있게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학습된 선유경향(predispotion)”으로 정의한다(Lee, Ahn, & Ha, 2015). 즉 태도는 어떤 대상에 대한 개인의 전반적인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이다. 이러한 태도 개념에 비추보면 창업에 대한 태도는 ‘창업에 대해 정확히 알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지 상태와 창업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느낌인 감정 상태, 그리고 창업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과 준비 및 실행 등 행동적 상태’로 볼 수 있다(Park & Park, 2009; Ha & Byun 2014). 따라서 창업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창업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종합해보면, 교육수준과 가족배경, 종교, 직업 등과 같은 개인의 배경적 특성들과 성취욕구, 통제위치, 위험감수성 등과 같은 심리적 특성들, 개인의 기술과 역량 등이 창업에 대한 태도형성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Ha, 2012). 이에 따라 창업분야에서는 이러한 특성들을 지닌 사람들을 발굴하거나 대학생들이나 예비창업자들이 이런 특성을 계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노력을 집중해왔다.

창업은 목표 지향적 행동이다. 목표란 행동이 가져올 수 있는 특정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목표 추구가 중요해지면 목표자체뿐만 아니라 성취에 있어서 태도 역시 중요해진다(Yi & Bagozzi, 2000). 그러나 Fishbein과 Ajzen의 이성적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과 같은 태도모형들은 주로 이성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성적 행동이론이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을 설명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으나, 목표

* 제1저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상경대학 벤처경영학과 부교수, hano@gntech.ac.kr

** 교신저자, 경상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강사, cgbyun@gnu.ac.kr

· 투고일: 2015-07-13 · 수정일: 2015-08-11 · 게재확정일: 2015-08-23

지향적 행동을 설명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Bagozzi & Edward, 1998). 즉, 이성적 행동이론은 행동수행에 있어 방해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고, 방해물들이 행동을 수행하는데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행동수행에 있어 방해물(창업의 경우 능력부족, 자금부족, 상황조건 등)이 존재하는 행위들은 목표라 부를 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방해물의 실제 존재여부가 아니라 존재유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다. 따라서 방해물이 잠재적으로 존재할 가능성만으로도 개인이 행동수행이나 목표달성을 위해 시도하느냐가 영향을 받는다. 이에 따라 Yi & Bagozzi(2000)는 목표지향적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시도이론(theory of trying)을 제시하였다. 이 이론의 가장 큰 특징은 목표지향적 행동을 설명할 수 있도록 태도를 재정의한 점이다. 이 이론에서는 태도가 1)목표 달성이나 행동의 수행의 성공에 대한 태도, 2)목표 달성이나 행동의 수행의 실패에 대한 태도, 3)성공이나 실패로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태도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즉, 3가지 시도태도가 시도의도에 영향을 미친다(Ha & Byun, 2014).

창업은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실패의 위험이 따르는 일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모든 일의 책임은 창업자 자신이 져야 한다. 따라서 불확실한 상황에 맞서는 개인의 태도와 같은 심리적 특성변수들도 창업태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은 창업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시도성공과 실패, 과정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에 주목하였다. 먼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성공과 실패, 과정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창업성공과 실패, 과정에 대한 태도는 창업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도 성공에 대한 태도와 시도 실패에 대한 태도, 과정 자체에 대한 태도 3가지를 창업시도태도의 선행요인으로 보고, 이들의 관계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II. 기존연구 검토 및 가설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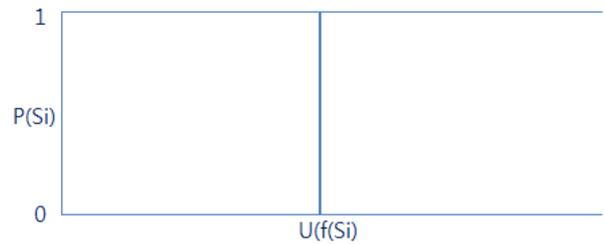
2.1 불확실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불확실성과 위험, 모호성은 의사결정 관련 연구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이다(Kahneman, Slovic, & Tversky, 1982). 인간의 합리성을 전제로 하는 규범적 모델에서는 환경이 예측가능하고 통제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의사결정이 일어나는 실제 환경은 여러 종류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사람들은 의사결정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Goldstein & Hogarth, 1996).

철학과 통계학 및 행동과학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확률(probability)이나 믿음(belief)의 정도와 같은 단일 차원으로 불확실성을 연구해왔다. 이런 연구의 흐름에 맞춰 심리학과 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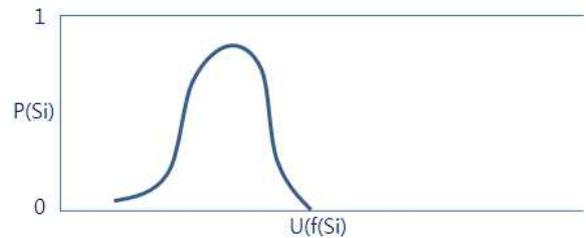
동경제학 분야에서도 사람들의 직관적인 판단이 전통적인 확률의 예측에서 벗어난다고 보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판단과 선택에 연구의 초점을 맞춰왔다(Goldstein & Hogarth, 1996; Ha, 2012). 하지만 불확실성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과 그 과정이 매우 다양하여 단일 차원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불확실성은 매우 다양하게 개념화되어왔다(Ghosh & Ray, 1997). 불확실성을 명확히 정의 내리기도 어렵고 통합된 정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불확실성은 그 정도에 따라 위험과 모호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Camerer & Weber, 1992; Ghosh & Ray, 1997). 먼저 <그림 1>을 살펴보자. 이 분포에 따르면 사람들이 특정 사건(S_i)이 확실하게 일어날 것($P(S_i)=1$)것으로 알기 때문에 $P(S_i)$ 의 확률분포는 <그림 1>과 같이 나타난다(예: 100% 당첨확률의 5만원 상품권). 이때 $U(f(S_i))$ 는 행동 f 의 결과로 얻게 될 효용을 뜻한다.



<그림 1> Distributions under certainty

만일 사람들이 어떤 사건이 발생할지는 모르지만, 각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미리 알고 있다면, 확률분포는 <그림 2>와 같이 나타나며, 이것을 위험 혹은 모호하지 않은 불확실성(unambiguous uncertainty)이라 말한다. 동전던지기의 경우에는 1/2의 확률로, 주사위던지기는 1/6의 확률로 시행에 따른 결과가 발생하며 이미 그 분포가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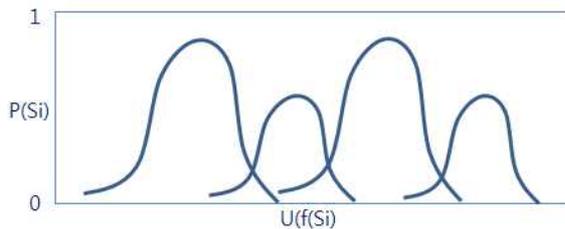


<그림 2> Distribution under risk

위험은 사전적으로 ‘해로움이나 손실이 생길 우려가 있음, 혹은 그런 상태’로 정의한다. 위험하다는 것은 어떤 대안의 선택으로 얻게 될 결과를 의사결정자가 사전에 확률적으로 예측할 수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예: 10% 확률의 500만원과 90% 확률의 100만원 중의 선택). 따라서 덜 위험하지만 이득이 적은 대안을 선택할 것인지 혹은 위험하지만 이득이 더 큰 대안을 선택할 것인지는 개인의 성향에

달려있다. 따라서 특정 대안을 선택할 경우 발생할 확률이 미리 알려져 있으므로 어떤 대안을 선택할 것인가는 개인의 위험추구성향에 달려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각 사건이 일어날 확률과 그 결과의 분포를 모르고 있을 때는 <그림 3>과 같은 확률분포를 가지며, 이를 모호하다고 말한다. 모호하다는 것은 ‘호리터분하여 분명하지 않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이는 어떤 대안의 선택으로 일어날 결과를 의사결정자가 사전에 확률적으로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예: 10% 확률의 500만원과 90% 확률의 100만원, 5% 확률의 200만원과 95% 확률의 50만원, 10% 확률의 500만원과 89% 확률의 100만원 및 1% 확률의 0원 등으로 여러 가지 확률분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의 선택). 따라서 사람들이 정보가 부족하여 특정 상황에서 어떤 확률분포가 발생할지를 모른다면, 특정 사건이 일어날 확률도 모호하게 된다(Frisch & Baron, 1988; Hogarth & Kunreuther, 1989). 예컨대 중고차를 산 사람은 6개월 이내 고장이 날 확률이 얼마인지 알 수 없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자동차 유지관리 이력 등의 완전한 정보도 없이 특정 기간 내에 고장 날 확률을 범위(20~40%)로 추정하며, 20%와 30% 등으로 추정하기란 더 더욱 어렵다. 따라서 불확실성의 정도는 위험 상황에서보다는 모호성 상황에서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 Distribution under ambiguity

한편 불확실성과 관련하여 심리학분야에서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개념이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tolerance of uncertainty)이다.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은 인지, 정서, 행동적 수준에서 불확실한 상황을 지각하고 해석하며 반응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편향(cognitive bias)이다(Dugas, Hedayati, Karavidas, Buhr, Francis, & Phillip, 2005).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건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예측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못건뎠으며, 모호한 상황을 더욱 위협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성향이 강하다. 이 때문에 여러 가지 신체적 스트레스 반응과 걱정, 불안, 우울과 같은 정서적 반응이 야기되기도 한다(MacLeod & Rutherford, 2004).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주로 걱정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불확실한 상황을 위협적인 것으로 지각하고, 자극이 불확실할수록 지연행동을 보이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etzger, Miller, Cohen, Sofka, & Brokovec, 1990).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청소년과 대학생의 진로결정과 사람들의 심리적 안녕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만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경영자와 창업자의 태도와 행동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서 살펴본 불확실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을 ‘위험에 대한 인내력’과 ‘모호성에 대한 인내력’으로 구분하고, 이들이 창업시도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후 창업시도에 대한 성공과 실패, 과정에 대한 태도가 창업시도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하고자 한다.

2.2 위험에 대한 인내력이 창업시도성과 실패 및 과정태도에 미치는 영향

기존연구들에 따르면 위험과 모호성에 대한 인내력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선택을 할 때 중요한 결정요인이며(Einhorn & Hogarth, 1985; Ghosh & Ray, 1992), 이들 변수들의 영향은 의사결정 맥락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고 한다(Schoemaker, 1990; Kahn & Sarin, 1988). 하지만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은 불확실성을 단일변수로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Ghosh & Ray(1992, 1997)의 연구를 바탕으로 불확실성을 하나의 수준으로 분석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앞서 살펴본 위험과 모호성에 대한 기존연구를 바탕으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을 불확실성의 수준에 따라 위험과 모호성으로 구분하고 이들이 창업시도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사람들이 의사결정 환경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그들이 그 환경으로부터 얻는 단서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달려있다. 의사결정 상황은 기회와 위험으로 분류할 수 있다. 경영자들은 일관되게 위험 상황에서 관료들보다 더 많은 기회를 보는 경향이 있으며, 이런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도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Cooper, Dunkelberg, & Woo, 1988). 또한 위험에 대한 인내력이 높은 경영자의 재무적 성과가 더 높다는 연구결과(Begley & Boyd, 1987)도 있다. 이런 연구결과는 의사결정자 자신의 위험에 대한 선호의 결과로 의사결정에서 더 큰 확신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험에 대한 인내력이 높은 사람들은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확신때문에 스스로 위험을 줄이거나 심지어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Bandura & Wood, 1989).

이에 따라 위험에 대한 인내력은 창업시도성과 실패, 과정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가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1-1 : 위험에 대한 인내력은 창업시도성공에 대한 태도에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 위험에 대한 인내력은 창업시도실패에 대한 태도에 부(-)²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 위협에 대한 인내력은 창업시도과정에 대한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모호성에 대한 인내력이 창업시도성과 과 실패 및 과정태도에 미치는 영향

위험에 대한 인내력의 개념은 Frenkel-Brunswik(1948)에 의해 개발되었고, 60여 년 넘게 많은 연구자의 주목을 받았다(Merrotsky, 2013). 위험에 대한 인내력은 개성변수 혹은 개인차 변수로 취급되었고, 임상심리학과 의학, 조직행동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었다(Furnham & Marks, 2013). Frenkel-Brunswik(1948)은 모호성에 대한 인내력을 감정적이며 지각적인 개성변수로 정의했다.

일부 연구자들은 불확실성 회피(uncertainty avoidance)와 위험추구성향(risk-taking propensity)을 비슷하게 취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Ellsberg(1961)는 모호성을 ‘상황을 이해하는데 혹은 발생할 결과를 식별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부족’으로 정의했다. Grenier, Barrette, & Ladouceur(2005)는 모호성에 대한 인내력을 현재의 모호한 상황에 대해 개인이 반응하는 기질적 특성으로 정의했다.

Lauriola & Levin(2001)은 실험연구를 통해 위험과 모호성에 대한 태도 차이를 비교했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모호성에 대한 태도 차이가 위험에 대한 태도와 일관성이 있었고, 모호성에 대한 선호가 위험 옵션에 대한 선호를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험회피 조건에서 의사결정을 할 경우 모호성에 대한 태도가 위험에 대한 태도보다 의사결정 절차에서 더 중요변수임을 밝혔다. 특히 Ghosh & Ray(1997)의 실험연구에서는 모호성이 위험으로 지각되거나 해석될 수 있으며, 모호한 상황에서 개인들이 보다 더 위험을 크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많은 연구자들은 위험결정이 합리적인 계산에만 의존하지 않으며, 위험추구에는 자신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Bromiley & Curley, 1992). 하지만 여러 실험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중요한 정보를 모를 경우 의사결정자들은 당황하거나 겁이 나기 때문에 내기(bet)를 피한다고 한다(Heath & Tversky, 1991). 이러한 결과는 자신감이 모호성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Ghosh & Ray, 1992; 1997).

무엇인가를 선택하거나 결정한다는 것은 미래에 자신이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것이다. 미래는 아무 것도 확실치 않으며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지 아무도 모른다. 따라서 모호성에 대한 인내력이 낮은 사람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더욱 불확실하고 위협적이라 느낄 것이다. 그러나 모호성에 대한 인내력이 높은 사람들은 이러한 불확실하고 위협적인 상황에서도 위험이 따르는 행동을 과감하게 할 것이다. 창업은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실패의 위험이 따르는 일이며, 여기서 발생하는 모든 일의 책임을 전적으로 창업자 자신이 져야하는 어려운 일이다. 모호성에 대한 인내력이 높은 사람들은 창업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다양한 도전과 위험을 자신이 능

숙하게 대처하고 줄일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다(Hmieleski & Baron, 2009). 이런 사람들은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 활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믿음 또한 강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할 수 있다.

가설 2-1 : 모호성에 대한 인내력은 창업시도성공에 대한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 모호성에 대한 인내력은 창업시도실패에 대한 태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 모호성에 대한 인내력은 창업시도과정에 대한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4 창업시도성과 실패 및 과정태도가 창업시도태도에 미치는 영향

Yi & Bagozzi(2000)는 목표지향적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시도이론(theory of trying)을 제시한바 있다. 이 이론의 가장 큰 특징은 목표지향적 행동을 설명할 수 있도록 태도를 재정의했다는 점이다. 이 이론에서는 태도가 1)목표 달성이나 행동 수행의 성공에 대한 태도, 2)목표 달성이나 행동의 수행의 실패에 대한 태도, 3)성공이나 실패로 이르기까지의 활동이나 과정에 대한 태도 등으로 크게 3가지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즉 이 3가지 시도태도가 시도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 시도이론을 창업상황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가설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3 : 창업시도 성공에 대한 태도는 창업시도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 창업시도 실패에 대한 태도는 창업시도태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 창업시도 과정에 대한 태도는 창업시도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I. 연구방법

3.1 표본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조사의 편의를 위해 창업관련 강좌를 듣고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 앞서 학생들에게 연구자가 연구목적과 피험자의 권리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설문참여를 부탁하였다. 이후 학생들은 응답 절차에 따라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지 작성은 두 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첫 단계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이었다. 이 단계에서 피험자들은 위험에 대한 인내력과 모호성에 대한 인내력과 관련한 설문에 응답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 피험자들은 창업시도 성공, 실패 및 과정에 대한 태도와 창업시도태도에 관한 설문에 응답하였다. 최종 수집된 표본은 200명으로, 무응답 항목이 있거나 부실

한 응답을 한 27명은 표본에서 제외하였으며, 분석에 사용된 최종표본은 173명이었다.

다고 볼 수 있었다. 타당성과 신뢰도 검정 결과는 <표 1>과 같다.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연구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해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요인을 추출하여 연구에 활용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위험에 대한 인내력을 기존연구를 토대로 ‘개인이 의사결정 상황에서 기회를 잡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로 정의하였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Kogan & Wallach(1964)가 개발하고 Ghosh & Ray(1992, 1997)이 보완한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기존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모호성에 대한 인내력을 ‘모호한 상황을 바람직한 것으로 지각하는 성향’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측정하는 데는 Budner(1962)가 개발하고 Ghosh & Ray(1992, 1997)가 보완한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창업시도성과 실패 및 과정에 대한 태도, 창업시도태도는 Bagozzi & Warshaw(1990), Yi & Bagozzi(2000)가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창업시도성공에 대한 태도는 “가까운 시간에 창업을 시도하여 성공한다면 나는 ___할 것이다.”라는 질문에 대해 4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다(즐거움/불쾌한, 좋은/나쁜, 신나는/역겨운, 만족스런/불만스런). 마찬가지로 창업시도실패에 대한 태도는 “가까운 시간에 창업을 시도하여 실패한다면 나는 ___할 것이다.”라는 질문에 대해 4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다(즐거움/불쾌한, 좋은/나쁜, 신나는/역겨운, 만족스런/불만스런). 창업시도과정에 대한 태도는 “가까운 시간에 창업을 시도한다면 성공과 실패에 관계없이 나는 ___할 것이다.”라는 질문에 대해 4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다(즐거움/불쾌한, 좋은/나쁜, 신나는/역겨운, 만족스런/불만스런). 창업시도태도는 “가까운 시간에 창업을 시도한다는 것은 나를 ___하게 만든다.”라는 질문에 대해 4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다(즐거움/불쾌한, 좋은/나쁜, 신나는/역겨운, 만족스런/불만스런).

IV. 실증결과분석

4.1 신뢰도와 타당성 분석

연구모형에서 제시한 설문항목들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 검정 결과, <표 1>에서 보듯이 각 요인들의 Cronbach's α 값이 0.6~0.9이상 나타나 측정항목들이 비교적 신뢰할 만한 수준에서 측정되었다고 볼 수 있었다(Nunnally, 1978). 신뢰도 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에 따라 적재량이 지나치게 적거나 적재된 요인이 일관되지 않은 모호성에 대한 인내력 1개 항목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요인의 KMO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KMO값이 .834로 나타나 변수와 관측치의 수가 적당하

<표 1> 타당성과 신뢰도 분석 (N=173)

요인	변수	요인적재량	아이겐 값	설명분산	Cronbach's α
위험에 대한 인내력	rt 1	.713	3.751	19.744	.861
	rt 2	.837			
	rt 3	.815			
	rt 4	.830			
모호성에 대한 인내력	at 1	.663	1.052	5.535	.638
	at 2	.920			
	at 4	.623			
창업시도 성공태도	sa 1	.884	2.818	14.829	.918
	sa 2	.907			
	sa 3	.864			
창업시도 실패태도	fa 1	.889	2.744	14.444	.944
	fa 2	.870			
	fa 3	.825			
창업시도 과정태도	pa 1	.821	2.571	13.532	.889
	pa 2	.846			
	pa 3	.701			
창업시도 태도	ta 1	.824	2.466	12.978	.930
	ta 2	.846			
	ta 3	.807			

<표 2> 구성개념간의 상관행렬

	Mean	Std.	1	2	3	4	5	6
1. 위험에 대한 태도	4.147	1.021	1					
2. 모호성에 대한 인내력	4.013	1.027	.648**	1				
3. 창업시도성공 태도	6.077	1.033	.083	.155*	1			
4. 창업시도실패 태도	2.659	1.459	-.393**	-.406**	.048	1		
5. 창업시도과정 태도	4.281	1.009	.324**	.371**	.331**	-.551**	1	
6. 창업시도태도	4.653	1.221	.295**	.364**	.493**	-.439**	.609**	1

*p<0.05, **p<0.01,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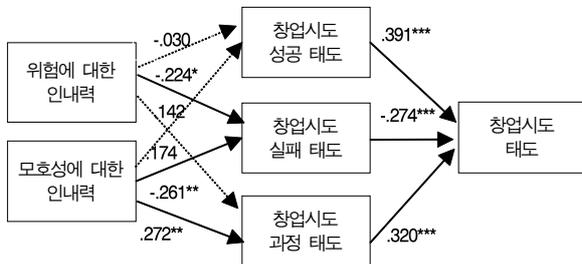
변수들 간의 관계가 어떤 방향이며, 어느 정도의 관계를 갖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각 변수들간 상관관계는 0.05 유의수준(양쪽)하에서 대부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관계수의 값이 0.5를 초과하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중공선성을 분석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는 0.10보다 크고, 분산팽창요인(VIF)은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표 2>는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의 행렬을 보여주고 있다.

4.2 가설검증 결과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AMOS 18.0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4.684(df=3)$, $\chi^2/DF=1.561$, GFI=.991, AGFI=.938, RMR=.056, RMSEA=.057, CFI=.995로 모든 지표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나 연구 개념들 간의 가설관계를 설명하기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Bagozzi & Yi, 1988).

<표 3> 경로분석에 의한 가설검증 결과

가설	경로	경로계수	표준오차	C.R.	P
H1	위험에 대한 인내력 → 창업시도성공태도	-.030	.100	-.301	.763
	위험에 대한 인내력 → 창업시도실패태도	-.224	.128	-2.491	.013
	위험에 대한 인내력 → 창업시도과정태도	.142	.093	1.531	.126
H2	모호성에 대한 인내력 → 창업시도성공태도	.174	.099	1.763	.078
	모호성에 대한 인내력 → 창업시도실패태도	-.261	.128	-2.898	.004
	모호성에 대한 인내력 → 창업시도과정태도	.272	.093	2.937	.003
H3	창업시도성공태도 → 창업시도태도	.391	.069	6.826	.000
H4	창업시도실패태도 → 창업시도태도	-.274	.056	-4.234	.000
H5	창업시도 과정 태도 → 창업시도태도	.320	.085	4.577	.000



<그림 4> 경로분석에 의한 가설검증 결과

먼저 위험에 대한 인내력이 창업시도성공과 실패 및 과정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였다(<표 3>과 <그림 1> 참조). 그 결과, 위험에 대한 인내력이 창업시도성공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한 가설 1-1은 기각(Estimate=-.030, C.R=-.301) 되었다. 반면 위험에 대한 인내력이 창업시도실패태도에는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한 가설 1-2는 채택(Estimate= -.224, C.R=-2.491, P<0.05) 되었다. 위험에 대한 인내력이 창업시도과정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한 가설 1-3은 기각(Estimate=-.142, C.R=-1.531) 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위험에 대한 인내력은 창업시도성공과 과정태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창업시도실패태도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위험에 대한 인내력과 마찬가지로 모호성에 대한 인내력이 창업시도성공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한 가설 2-1은 기각(Estimate=.174, C.R=1.763)되었다. 모호성에 대한 인내력이 창업시도실패태도에는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한 가설 2-2는 채택(Estimate= -.261, C.R=-2.898, P<0.01) 되었다. 모호성에 대한 인내력이 창업시도과정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한 가설 2-3은 채택(Estimate=.272, C.R.=2.937, P<0.01) 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위험에 대한 인내력과 모호성에 대한 인내력이 창업시도성공과 실패 및 과정에 대한 태도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험에 대한 인내력은 창업시도실패에 따른 두려움을 줄여주고, 모호성에 대한 인내력은 창업시도실패에 따른 두려움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창업시도과정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연구결과(Ha & Byun, 2014)와 마찬가지로 창업시도성공태도가 창업시도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은 채택(Estimate=.391, C.R.=6.826, P<0.001) 되었다. 창업시도실패태도가 창업시도태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4는 채택(Estimate=-.274, C.R=-4.234, P<0.001) 되었다. 창업시도과정태도가 창업시도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5는 채택(Estimate=.320, C.R.=4.577, P<0.001) 되었다. 창업시도태도에는 창업시도성공에 대한 태도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며, 그 다음으로 창업시도과정태도, 창업시도실패태도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창업은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실패의 위험이 따르는 일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모든 일의 책임은 창업자 자신이 져야 한다. 따라서 불확실한 상황에 맞서는 개인의 태도와 같은 심리적 특성변수들도 창업시도태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시도성공과 실패 및 과정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에 주목하였다.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은 ‘위험에 대한 인내력’과 ‘모호성에 대한 인내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위험과 모호성에 대한 인내력이 창업시도성공과 시도실패 및 시도과정 자체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 보고, 이들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창업시도성공과 실패 및 시도과정에 대한 태도가 창업시도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위험에 대한 인내력과 모호성에 대한 인내력이 창업시도성공과 실패 및 과정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달리 나타냈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가설과 달리 위험에 대한 인내력은 창업시도실패에 대한 태도에만 영향을 미칠 뿐 창업시도성공과 과정에 대한 태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호성에 대한 인내력은 창업시도실패와 과정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호성에 대한 인내력은 창업시도성공태도보다는 창업시도실패와 과정태도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상과 마찬가지로 창업시도성공과 실패 및 과정태도는 창업시도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문적 의의와 실무적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의 학문적 의의이다. 불확실성은 주로 심리학과 행동과학 및 행동경제학 등의 분야에서 주로 다루어왔고, 창업분야에서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한 개념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불확실성을 창업 의사결정

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으로 파악하고 그 영향을 살펴 보았다. 그리고 불확실성을 그 정도에 따라 위험과 모호성으로 구분하여 그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 점이 본 연구의 가장 큰 의의라 할 수 있다. 특히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과 관련된 연구는 심리학분야에서 청소년과 대학생의 진로결정문제와 사람들의 심리적 안녕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주목을 받아왔지만, 본 연구에서는 창업자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개인적 특성변수로 파악한 점을 학문적 의의로 들 수 있다.

본 연구의 학문적 의의로 소비자의 행동의도를 파악하는 시도이론을 통해 창업시도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고자 한 점이다. 시도이론은 단순히 시도태도가 시도도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시도성공과 실패에 대한 태도와 더불어 시도과정도 시도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이론을 토대로 시도성공과 실패 및 과정에 대한 태도 미치는 선행변수로서 위험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을, 결과변수로서 시도태도를 제시하여 그 영향관계를 파악한 점 또한 중요한 학문적 의의로 들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형성을 위한 방안을 들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창업시도성공과 과정에 대한 태도가 창업시도실패태도보다 창업시도태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의 호의적인 창업시도태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성공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과정과 성공스토리를 소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성공스토리 발굴과 홍보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정부와 공공기관들은 창업친화적인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하고 창업문화 확산을 통해 청년들의 창업태도를 고취하여 취업의 대안으로 창업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결과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런 정부와 공공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창업에 대한 태도는 생각보다 호의적이지 않다. 특히 창업에 대한 태도가 호의적이지 않은 이유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마찬가지로 본 연구결과에서도 위험과 모호성에 대한 인내력이 창업시도실패태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에 대한 태도를 호의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창업시도실패를 호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창업을 시도하는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창업은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실패의 위험이 따르는 일이다.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책임은 창업자 자신이 져야한다. 특히 창업실패에 대한 책임 또한 스스로 떠안아야 한다. 따라서 청년들은 창업을 꺼리고 취업을 위한 스펙쌓기에 열중한다. 창업에 뛰어들다하더라도 새로운 사업기회에 도전하는 기술형 창업보다는 일반서비스 창업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따라서 창업시도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형성

을 위해서는 실패에 따른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지원정책과 제도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은 진로결정과 삶에 대한 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모호성에 대한 인내력이 창업시도실패와 과정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창업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형성을 위해서는 불확실성에 대처하고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시도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의 심리적 특성변수들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들 변수들의 직접적인 영향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과의 상호작용효과를 고려하지 않았다. 이후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라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특성으로서 불확실성을 다루었다. 실제 창업을 결정하는 데는 자신을 둘러싼 실제 창업환경을 어떤 정도의 불확실성으로 지각하는가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맥락효과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향후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한 개인의 지각의 영향을 고려하는 추가 연구 또한 필요하다. 창업시도성공과 실패태도는 창업성공에 대한 기대와 상호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대의 영향은 고려하지 않았다. 둘째, 표본추출의 편의를 위해 대상자를 대학생으로 한정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REFERENCE

- Bagozzi, R. P. & Edward, E. A.(1998). Goal-Setting and Goal Pursuit in the Regulation of Body Weight, *Psychology and Health*, 13, 593-621.
- Bagozzi, R. P. & Warshaw, P. R.(1990). Try to Consum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7(2), 127-140.
- Bagozzi, R. P. and Yi, Y. J.(1988). On the Evaluation of Structural Equation Models,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16(1), 74-94.
- Bandura, A. & Wood, R.(1989). The Effect of Perceived Controllability and Performance Standards on Self-regulation of Complex Decision Mak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805-914.
- Begley, T. M. & Boyd, D. P.(1987).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Associated with Performance in Entrepreneurial Firms and Small Busines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 79-83.
- Bromiley, P. & Curley, S.(1992). Individual Differences in Risk Taking. In J. Yates (Ed.), *Risk Taking Behavior*, New York: Wiley, 87-132.
- Budner, S.(1962). Intolerance of Ambiguity As a Personality Variable, *Journal of Personality*, 30, 29-50.
- Camerer, C. & Weber, M.(1992). Recent Developments in Modeling Preferences: Uncertainty and Ambiguity, *Journal of Risk and Uncertainty*, 5, 325-370.
- Cooper, A. Dunkelberg, W. & Woo, C.(1988). Entrepreneur's

- Perceived Chances for Succes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3, 97-108.
- Degas, M. J., Hedayati, M., Karavidas, A., Buhr, K., Francis, F. & Phillips, N.(2005). Intolerance of Uncertainty and Information Processing: Evidence of Biased Recall and Interpretat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9, 57-70.
- Dugas, M. J., Freeston, M. H. & Ladouceur, R.(1997). Intolerance of Uncertainty and Problem Orientation in Worr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1, 593-606.
- Einhorn, H. J. & Hogarth, R. M.(1985). Ambiguity and Uncertainty in Probabilistic Inference, *Psychological Review*, 92, 433-461.
- Ellsberg, D.(1961). Risk, Ambiguity, and the Savage Axiom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75, 643-669.
- Frenkel-Brunswick, E.(1948). Intolerance of Ambiguity as an Emotional and Perceptual Personality Variable, *Journal of Personality*, 18(1), 108-123.
- Frisch, D. & Baron, J.(1988). Ambiguity and Rationality, *Journal of Business Decision Making*, 1(3), 149-157.
- Furnham, A. & Marks, J(2013). Tolerance of Ambiguity: A Review of the Recent Literature, *Psychology*, 4(9), 717-728.
- Ghosh, D. & Ray, M. R.(1992). Risk Attitude, Ambiguity Tolerance and Decision Making: An Exploratory Investigation, *Decision Sciences*, 23(2), 431-444.
- _____ (1997). Risk Attitude, Ambiguity Tolerance and Decision Choice: Some Additional Evidence, *Decision Sciences*, 28(1), 81-104.
- Goldstein, W. M., & Hogarth, R. M.(1996). *Research on Judgment and Decision Making: Currents, Connections, and Controvers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renier, S., Barrette, A. M., & Ladouceur, R.(2005). Intolerance of Uncertainty and Intolerance of Ambiguity: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9, 593-600.
- Ha, H. H. & Byun, C. G.(2014). The Effects of Positive Cognitive Bias on Attitude toward Success(Failure)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9(4), 145-153.
- Ha, K. S. & Han, J. W.(2010). A Study on the Failure-Stress of Entrepreneur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Asia-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32(1), 21-41.
- Ha, K. S.(2012). Factors Affecting Entrepreneurial Intention from Business Attitude and Fear on Business Failure, *Korean Corporation Management Review*, 19(5), 59-74.
- Ha, Y. W.(2012). *The Psychology of Decision Making*, Seoul: 21 Century Books.
- Heath, C. & Tversky, A.(1991). Preference and Belief: Ambiguity and Competence in Choice Under Uncertainty, *Journal of Risk and Uncertainty*, 4, 5-28.
- Hmieleski, K. M. & Baron, R. A.(2009). Entrepreneurs' Optimism and New Venture Performance: A Social Cognitive Perspectiv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52(3), 473-488.
- Hogarth, R. M. & Kunreuther, H.(1989). Risk, Ambiguity, and Insurance, *Journal of Risk and Uncertainty*, 2, 5-35.
- Kahn, B. E. & Sarin, R. K.(1988). Modeling Ambiguity in Decision Under Uncertainty,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5, 265-272.
- Kahneman D., Slovic P. & Tversky, A.(1982). *Judgment Under Uncertainty: Heuristics and Biase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ogan, N. & Wallach, M.(1964). *Risk-taking: A Study in Cognition and Personality*,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 Lauriola, M. & Levin, I. P.(2001). Relat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Attitude toward Ambiguity to Risky Choices, *Journal of Behavioral Decision Making*, 14, 107-122.
- Lee, H. S., Ahn, K. H. & Ha, Y. W.(2015). *Consumer Behavior*, Seoul: Jiphyunje.
- MacLeod, C. & Rutherford, E.(2004). Information-processing Approach: Assessing the Selective Functioning of Attention, Interpretation, and Retrieval, In Heinger, R. G., Turke, C. L., Mennin, D. S.(Eds),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Advances in Research and Practice*, New York: Guilford Press.
- Merrotsky, P.(2013). Tolerance of Ambiguity: A Trait of the Creative Personality, *Creativity Research Journal*, 25, 232-237.
- Metzger, T. J., Miller, M. L., Cohen, M., Sofka, M. & Brokovec, T. D.(1990). Worry Changes Decision Making: The Effect of Negative Thoughts on Cognitive Processing,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6, 78-88.
- Nunnally, J.(1978). *Psychometric Theory*, New York; McGraw-Hill.
- Oser F. & Volery, T.(2012). Sense of Failure and Sense of Success among Entrepreneurs: The Identification and Promotion of Neglected Twin Entrepreneurial Competencies, *Empirical Research in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4(1), 27-44.
- Park, S. B. & Park, J. O.(2009). *Consumer Behavior*, Seoul: Booknet.
- Schoemaker, P.(1990). Are Risk Attitude Related Across Domains and Response Modes?, *Management Science*, 36, 1451-1463.
-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n.d). *Awareness and Improve Research Projects on Youth Entrepreneurship*, Retrieved May 14, 2015, from http://www.korcham.net/nCham/Service/Economy/appl/KcciReportDetail.asp?DATA_ID=20120929667&CHAM_CD=B001.
- Yi, Y. J. & Bagozzi, R. P.(2000). A Theoretical Investigation into the Theory of Trying, *Asia Marketing Journal*, 2(2), 39-62.

The Effects of Uncertainty Tolerance on Attitude toward Business Start-up Trying

Ha, Hwan Ho*
Byun, Chung Gyu**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linkage between uncertainty tolerance and attitude toward trying business start-up. Uncertainty tolerance can classify by degrees of uncertainty as risk and ambiguity. We examined the effects of risk tolerance and ambiguity tolerance on attitudes toward trying success and failure. And we also examined the effect of attitudes toward trying success and failure on business start-up trying. This study investigated these relationships using 173 under graduate students.

The result of analysis indicated that the risk tolerance had positive effects on attitude toward trying failure, but it had not any effect on attitude toward success and process. The ambiguity tolerance has positive effects on attitude toward trying failure and trying process, but it had not any effect on attitude toward success. The attitudes toward trying success, trying failure, and trying process had positive effect on attitude toward business start-up trying. Then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uncertainty(risk and ambiguity) tolerance showed a role of antecedent of attitudes toward trying success and failure. Finally, this study concluded with a discussion of the implications of the research findings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KeyWords: Uncertainty tolerance, Risk tolerance, Ambiguity tolerance, Attitude toward trying success, Attitude toward trying failure, Attitude toward trying process, Attitude toward trying start-up.

* Associate Professor, Dept. of Venture & Business, Gyeongnam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hano@gntech.ac.kr

** Lecturer,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cgbyun@gnu.ac.kr